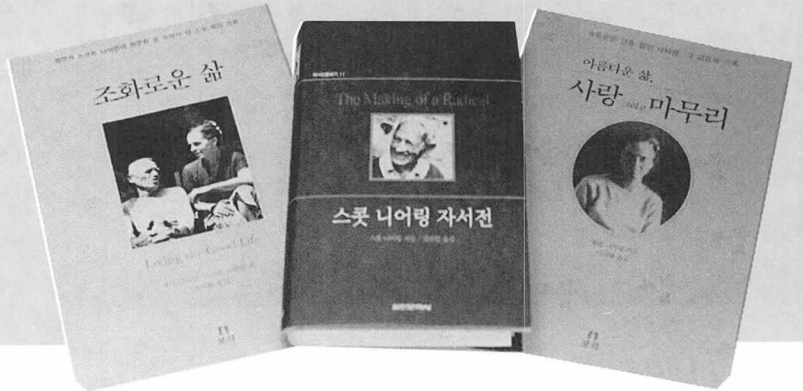


## 서점가에 부는 '스코트-헬렌 니어링' 열풍

대안적 삶의 모색과 맞물려 판매 호조 보여

5년 전만 해도 전혀 생소한 인물이었던 니어링 부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이들의 첫번째 책은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봄, 한달 사이에 출간된 책 두권 역시 베스트셀러 대열에 진입했다. 니어링 부부 읽기는 우리 사회에 대안적 삶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증거로 보인다.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이 출판가의 새로운 인기 저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들 부부는 국내 독자들에게 미지의 인물이나 다름없었다. 니어링 부부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녹색평론》을 통해서였다. 《녹색평론》 1995년 3~4월호에 실린 <아흔살의 관점—헬렌 니어링과의 대담>이 계기가 돼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헬렌 니어링, 이석태, 보리, 1997)가 번역됨으로써 니어링 부부의 사상이 국내에 알려지게 됐다.

### 한번에 수십권 주문하는 열성독자도 있어

헬렌이 쓴 부부 공동전기인 이 책은 출간 3년만에 실속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판매부수는 5만여권을 헤아리며, 각종 추천도서 목록에 자주 오르고 있다. 특히, 생태·환경 관련 추천목록에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출판저널》(제277호, 2000년 4월 5일)이 마련한 환경운동가들이 뽑은 '우리 시대 최고의 생태도서'에서도 《오래된 미래》(녹색평론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판매호조에는 이 책의 '전도사'를 자임하는 독자들의 활약이 적지 않게 기여했다. 책이 주는 감동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네댓권 선물하는 것은 보통이고, 전남 해남의 어느 음식점 주인은 정기적으로 한번에 수십권씩 출판사로 책을 주문할 정도다.

열성 팬들에게 지난 봄에는 뜻하지 않은 기쁨이 있었다. 한달 간격으로 니어링 부부의 책이 두권이나 출간된 것이다. 이 책들에 대한 반응 역시 아주 뜨거워 서점가는 지금 니어링 열기에 휩싸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4월에 나온 부부 공동집필의 《조화로운 삶》(류시화, 보리)은 <굿 라이프> 3부작의 하나로 《아름다운 삶...》 또한 이 시리즈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조화로운 삶》(1954)이 먼저 나왔으나, 국내에 번역된 순서에 따라 이 책을 《아름다운 삶...》의 속편으로 봐도 무방하다. 《아름다운 삶...》이 니어링 부부의 전체 삶을 관통하고 있다면, 《조화로운 삶》은 특정 시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부부가 버몬트 숲에서 보낸 20년을 다룬 이 책은 '귀농'

생활의 중간결산인 셈이다. 이 책은 출간 두달만에 1만5천부가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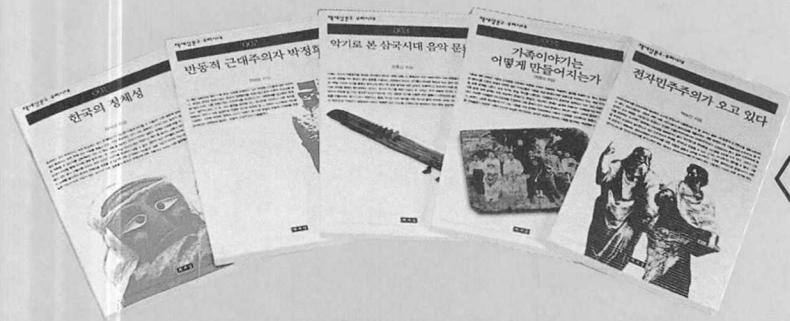
### 새로운 삶의 방식 실천적으로 보여줘

한편, 지난 5월 출간된 《스코트 니어링 자서전》(김라함, 실천문학사)은 불과 한달 사이에 1만3천권이 팔리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입했다. 실천문학사의 또다른 베스트셀러 《체 게바라 평전》의 판매 현황과 비교하면, 니어링 부부 책 독자층의 윤곽이 얼추 잡힌다. 체 게바라가 대형서점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의 호응이 높은 데 비해, 니어링 자서전에 대한 반응은 전국적으로 고른 편이다.

실천문학사 김영현 대표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요즘 사람들의 화두가 아닌가 한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니어링의 진지함에 독자들이 심분 공감하는 것 같다"고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도서출판 보리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남우희 편집차장은 "10년 전에 나왔으면 잘 안팔렸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니어링 부부의 메시지는 대단한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니어링 부부를 소로우 사상의 계승자로 보는 고병헌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의 분석도 설득력있다.

"니어링 부부의 책이 한국에서 널리 읽히는 현상에 대해 미국인들조차 놀라워 한다. 그들에게 니어링 부부는 이미 잊혀진 존재기 때문이다. 니어링 부부에 대한 독서열은 우리 사회에 대안적 삶을 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뚜렷한 징표다. 이들에게 니어링 부부는 선각자요, 참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니어링 부부에 대한 독서 열기가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다. 《아름다운 삶...》의 꾸준한 판매가 이를 잘 말해주거니와, 후속작의 출간 또한 이어질 전망이다. 출판사 두세군테서 니어링 부부의 책을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도서출판 보리는 《컨티뉴잉 굿 라이프》를 펴낼 예정이다. 출간 날짜는 미정. 스코트 니어링의 가르침대로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 최성일 기자



## 〈책세상문고 · 우리시대〉 시리즈 1차분 발간

정치 · 사회 · 역사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쟁 제기

‘책세상’이 한국사회의 쟁점을 다룬 〈책세상문고 · 우리시대〉 시리즈를 내놨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출간된 이 시리즈는 정치 · 사회 · 역사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쟁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기획과 집필은 국내 소장학자들이 담당했다. 우선 1차분으로 5종이 나왔으며, 앞으로 매달 25일 5종씩 출간할 계획이다.

첫권인 《한국의 정체성》(탁석산 지음)은 시리즈의 성격을 알려주는 ‘간판’ 격으로 한국적인 것과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지은이는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갖춘 것이 ‘한국적인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전재호 지음)는 박정희 신드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한다. 지은이는 박정희 정권의 사고가 19세기 말 독일의 ‘반동적 근대화’의 사고와 비슷하다고 보고, 박정희 정권의 정치관 · 경제정책 · 역사관의 검토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 《악기로 본 삼국시대 음악 문화》(한홍섭 지음)는 중국의 악기와 음악을 독창적으로 수용한 삼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적인 외래문화 수용’의 전범을 제시한다.

그밖에 박완서 · 신경숙 · 방현석 등의 문학작품에서 가족이야기의 근대적 변천이 어떻게 형상화됐는지 살펴본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권명아 지음)와 정보사회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방법을 논한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박동진 지음)도 나왔다.

책세상은 이번 시리즈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진지한 고민을 담은 대중교양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판형을 문고판으로 제작하고, 원고분량을 200자 원고지 500매 정도로 제한했다. 책의 구성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라이프스토리 형식으로 필자를 소개했고, 각종 서적, 신문 · 잡지 기사, 인터넷 사이트 등 ‘더 읽어야 할 자료들’을 덧붙였다.

논쟁의 확대와 독자와의 만남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출판사 인터넷 사이트(www.bkworld.co.kr)에 게시판을 따로 마련해 지은이와 독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 대형서점에서 지은이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일에는 탁석산씨가 영풍문고 이벤트홀에서 ‘한국의 주체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6월 25일에는 《한국의 주체성》(탁석산 지음), 《철학과 문학비평, 그 비판적 대화》(김영건 지음), 《우리 시대의 북한철학》(선우현 지음), 《우리 역사의 여왕들》(조범환 지음),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김창수 지음)이 나올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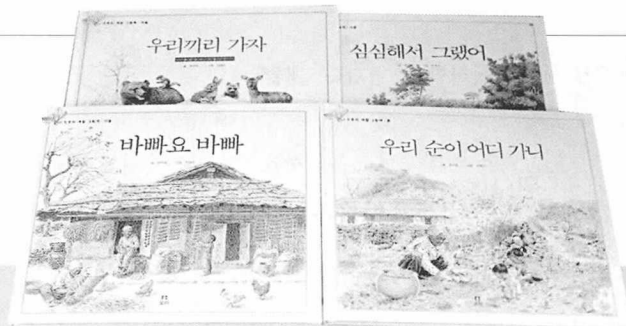
## 〈도토리 계절 그림책〉 시리즈 완간돼

세밀화가 이태수씨, 원화전시회도 열어

《바빠요 바빠》(가을편)를 끝으로 〈도토리 계절 그림책〉 시리즈가 완간됐다. 도서출판 도토리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보리가 펴낸 〈도토리 계절 그림책〉은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시골 모습을 네권이 나눠 담았다. 윤구병씨가 글을 쓰고 이태수씨가 작화를 맡았다.

이번에 나온 《바빠요 바빠》는 산골마을의 가을걷이와 겨울나기 준비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주인공 마루네 식구들이 고추 따서 말리고, 콩을 털고, 벼를 베고, 김장을 하면서 바쁘게 겨울 준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도토리 계절 그림책〉은 실제 우리나라의 산천을 모델로 한 세밀화를 실었다는 점이 특징. 화가 이태수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 강원도 삼척시의 굴피집을 꼼꼼히 취재했다. 굴피집은 흙으로 집을 짓고 지붕을 참나무 껍데기로 올린 집. 4년 동안 겨울마다 관찰과 취재, 스케치를 하는 등



준비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은 콩테로 그리고, 그 위에 수채화를 입혀 가을의 ‘까실까실한’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한편, 도서출판 보리는 〈도토리 계절 그림책〉 완간을 기념해 〈세밀화가 이태수 원화 전시회—심심해서 그랬어〉를 연다.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현대아트갤러리(현대백화점 신촌점 10층)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화가가 10여년 동안 그려온 세밀화 중 일부와 〈도토리 계절 그림책〉의 원화를 선보인다. 전시기간에는 〈도토리 계절 그림책〉의 작가 · 화가 · 편집자와 평론가를 만나는 자리,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 등의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 김정은 기자